



유기가공식품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I. 유기가공식품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1. 국내 유기가공식품 현황	4
2. EU 및 일본의 유기가공식품 현황	13
3.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과 의미	22
4.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 전략	26

II. 국제 금융시장

1. 국제 외환시장	37
2. 국제 상품시장	38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사항

1. 최근 검역제도 변경사항	43
2. 최근 수입제도 변경사항	48

IV. 유기가공식품 수출 유망품목 및 수출전략 : EU, 일본

49

I. 유기가공식품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작성자: 김태운

1. 국내 유기가공식품 현황
2. EU 및 일본의 유기가공식품 현황
3.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과 의미
4.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활성화 전략

- 본 연구는 △ 유기가공식품의 개념과 국내 시장 현황 △ EU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및 수입 현황 △ 일본의 유기식품 시장 현황 △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의 의미 △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EU의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가 2013년 기준 약 34조원이고, 일본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우리와 유사한 약 1.4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1년 동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량이 7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두부, 유제품 등 일부 소수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 한편, 2015년 2월 1일 발효된 한-EU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은 미국 이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상호 동등성 협정으로 국내 유기인증 제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가능성 증대와 함께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교두보 마련 등의 의미가 있다.
- 또한 소비자는 EU 등 해외의 안전하고 다양한 유기가공 식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하지만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반 조성, 품목별 해외 거점지역에서의 유기원료 조달, EU 등 해외시장 조사 등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이 절실하다.
- 유기가공식품의 상호인증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별·품목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신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유기가공식품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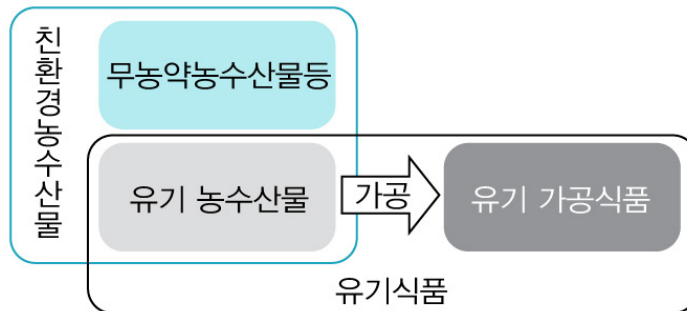
1. 국내 유기가공식품 현황

1) 기본 개념

●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법률’ 제2조 4호)을 뜻한다.

● 국내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¹⁾을 유기 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수산물 등²⁾으로 구분한다. 유기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유기 가공 식품이라 정의하는데 유기 농수산물과 유기 가공 식품을 통틀어 유기 식품이라 지칭한다.

■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구분 ■



● 유기 식품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식품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유기 가공 식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유기 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서류로 신청하여 인증을 획득해야 유기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³⁾.

1) 친환경농수산물에 포함되었던 저농약 농수산물에 대한 인증은 2010년 중단 되었으며, 저농약 인증제도를 2016년 완전히 폐지한다.

2) 무농약 농수산물 등은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을 통틀어 일컫는다.

3) 정부는 기존 사용 하던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인증제’ 만을 두어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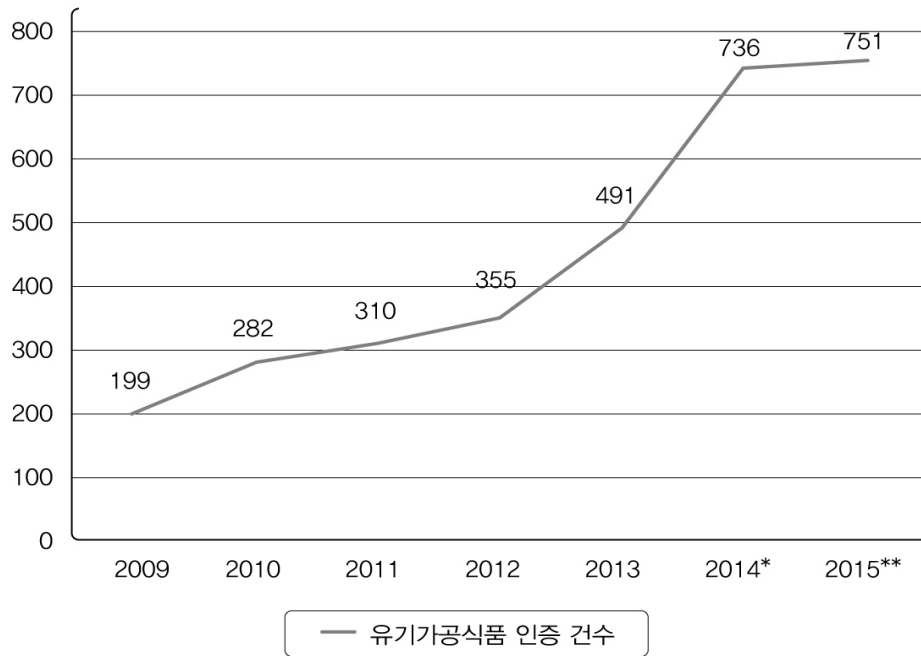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 유기가공식품 현황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친환경 농축산물 수입자, 친환경 농축산물 포장 단위 변경 유통 취급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혹은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친환경인증관리정보 시스템(www.enviagro.go.kr)은 국립농산물품질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과 인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014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이 ‘인증제’로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전에는 유기가공식품은 제조업체 자율로 ‘유기농’ 표시가 가능했고, 특히,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은 외국 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유기’ 표시의 판매가 가능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기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등의 표시를 하여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2014년 약 736건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9년 199건의 약 3.5배가 넘는 수치이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갱신하기 때문에 인증 현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유기농식품 인증 현황(2008~15년)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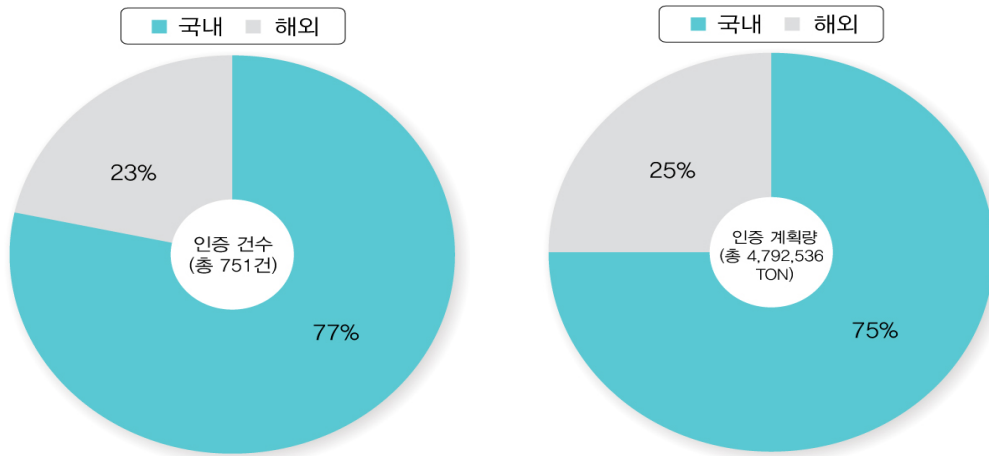
* : 2014년의 경우 추정치, ** : 2015년 1월 25일 기준.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5년 1월 기준 국내 유기농식품의 인증 건수 현황은 총 751건으로 이 중 국내 77%, 해외 23%이고, 총 인증 계획량은 4.7백만 톤으로 국내 75%, 해외 25% 수준이다.

●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자료를 비교해보면, 인증 건수는 647건에서 75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2%였던 해외 인증 건수 비율이 23%로 증가하였고, 총 출하 계획량은 4.9백만 톤에서 4.7백만 톤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해외인증 계획량이 2%에서 25%로 크게 증가하였다.

■ 최근 1년간(2014.1.~2015.1) 국내·외 유기농식품 인증 건수 및 인증 계획량 비중 ■



출처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도표화함.

● 최근 1년간 유기농식품 인증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인증 건수는 최소 13건에서 최대 199건, 인증 계획량은 최소 8천 톤에서 최대 2.3백만 톤으로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 월별 인증건수는 평균 58건이고, 연말 인증 건수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인증 계획량은 3월~4월에 가장 높았다.
- 월별 인증계획량의 경우 편차가 큰 편인데, 특히 2014년 3월 두부류 및 목류에 대한 인증계획량이 약 1백만 톤이고, 4월에는 우유 및 유제품의 인증계획량이 약 2.3백만 톤으로 기록되었다.

■ 최근 국내 유기농식품의 월별 품질인증 실적(2014.1.23~2015.1.23) ■

(단위: 건, 개,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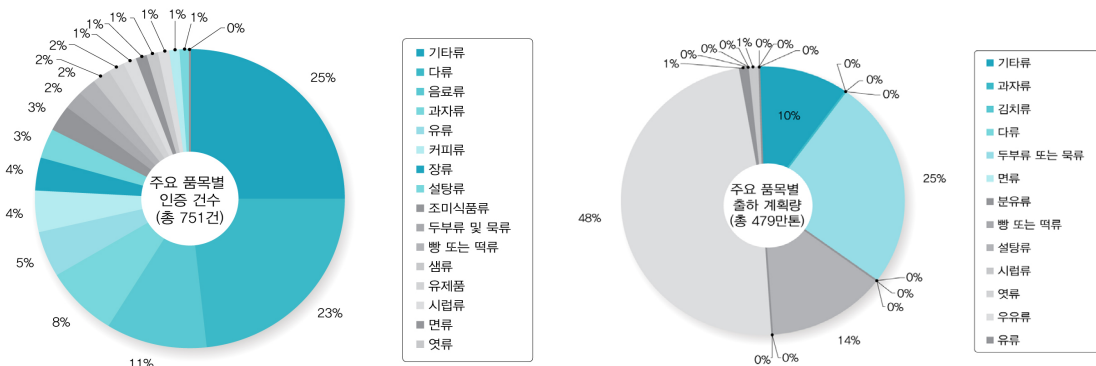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인증건수	13	35	46	44	38	61	62	38	49	47	79	199	40
인증계획량	8	14.7	1,182	2,324	362	69	49	17	497	32	150	84	6

출처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정리함.

- 2014년 1월부터 약 1년간의 품목별 유기농식품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출하 계획량 기준 우유류 2.3백만 톤, 두부류 및 묵류 1.2백만 톤, 설탕 66만 톤, 기타식품 47만 톤, 음료류 6만 톤 수준이다.

- 인증건수 기준으로는 차(茶)류 173건, 기타식품 189건, 음료류 79건, 과자류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2014.1.~2015.1) 주요 품목별 인증건수 및 출하계획량 비중 ■



* 인증기관에 따라 품목별 분류 방식이 모호하게 나뉘진 경우가 있으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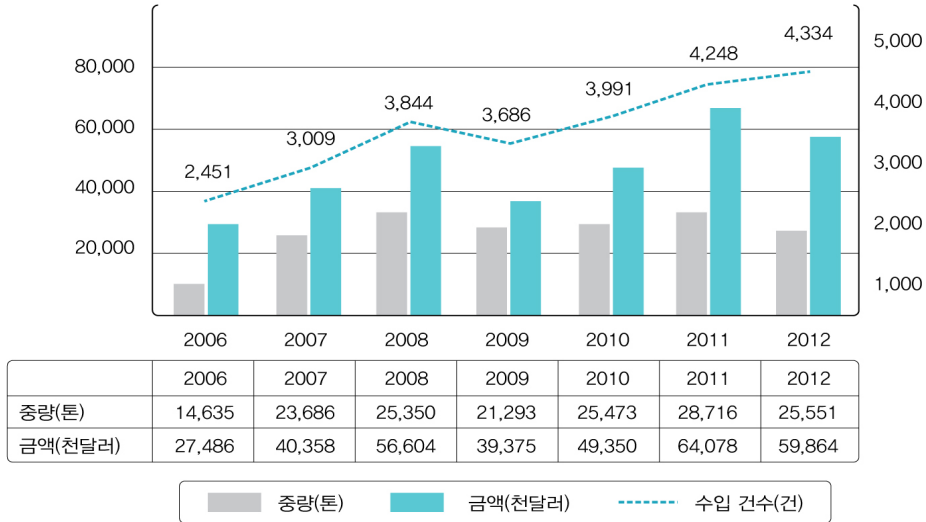
출처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도표화함.

- 2011년 3월 기준, 2013년까지 유기농식품 인증품목의 시장 규모를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약 36.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평균으로는 약 11.1%의 성장률을 예상하였다.

- 2010년 시장 규모는 음료류 1,327억 원, 차(茶)류 207.7억 원, 두부·묵류 537.9억 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도별(2006~2012)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좌: 톤, 천 달러, 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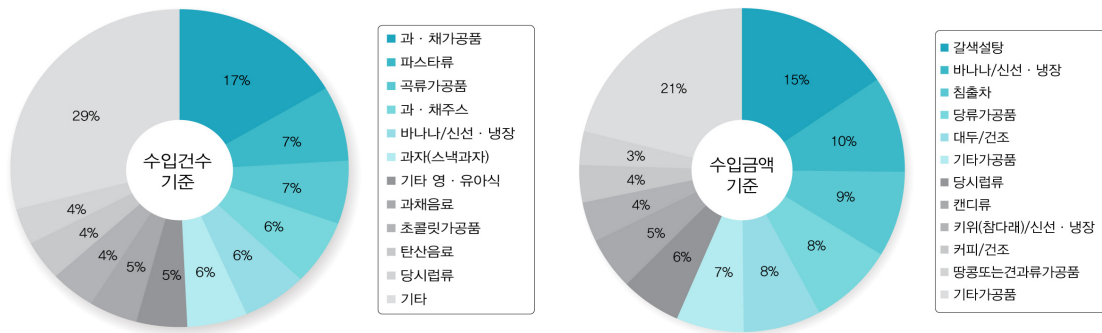


출처 :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20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유기농식품의 2012년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건수를 기준으로 과일채소 가공품, 파스타류, 곡류가공품 등이 많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갈색설탕, 바나나, 침출차, 당류 가공품 등이 많은 편이다.

- 수입 건수의 경우 과일과 채소 가공품, 파스타, 곡류가공품, 과일과 채소 주스, 바나나(신선·냉장), 과자의 상위 6개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수입 금액 기준, 갈색설탕, 바나나(신선·냉장 포함), 침출차, 당류가공품, 대두의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유기농식품 2012년 품목별 수입현황 ■



출처 :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20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2006년 2,533억 원에서 연간 약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31,769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성장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기농산물에 비해 유기가공식품의 규모가 조금 더 큰 수준이다.

■ 국내 유기식품 시장 규모 추이(2006~2020년) ■

(단위: 억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2015년(E)	2020년(E)	CAGR% (11~20)
유기농산물	1,114	1,427	1,885	3,000	6,510	14,296	18.94
유기가공식품	1,419	1,719	2,158	3,777	7,957	17,473	18.55
합계	2,533	3,146	4,043	6,777	14,467	31,769	18.77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5년과 2020년 수치는 예측값,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기농산물 예측자료 기반 산출).

● 2015년 1월 기준, 국내 유기가공식품을 인증하는 민간 기관이 총 18개이며, 국내외 모두 인증 가능한 기관은 7개, 국내만 인증 가능한 기관이 8개, 해외에만 인증 가능한 기관은 3개이다.



■ 국내 유기농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2015년 1월 기준) ■

인증 기관명	인증지역
(주)한국농식품인증원	국내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국내, 해외
(주)부강테크	국내, 해외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국내, 해외
오씨케이(주)	국내, 해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국내
건국에코써트인증원(주)	국내, 해외
(주)우리농인증원	국내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해외
BCS(BCS Öko-Garantie GmbH)	해외
(주)비씨에스코리아	국내
(사)제주농림수산물인증센터	국내
(재)하동녹차연구소	국내
(주)에코리더스인증원	국내, 해외
ECOCERT SA	해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국내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국내,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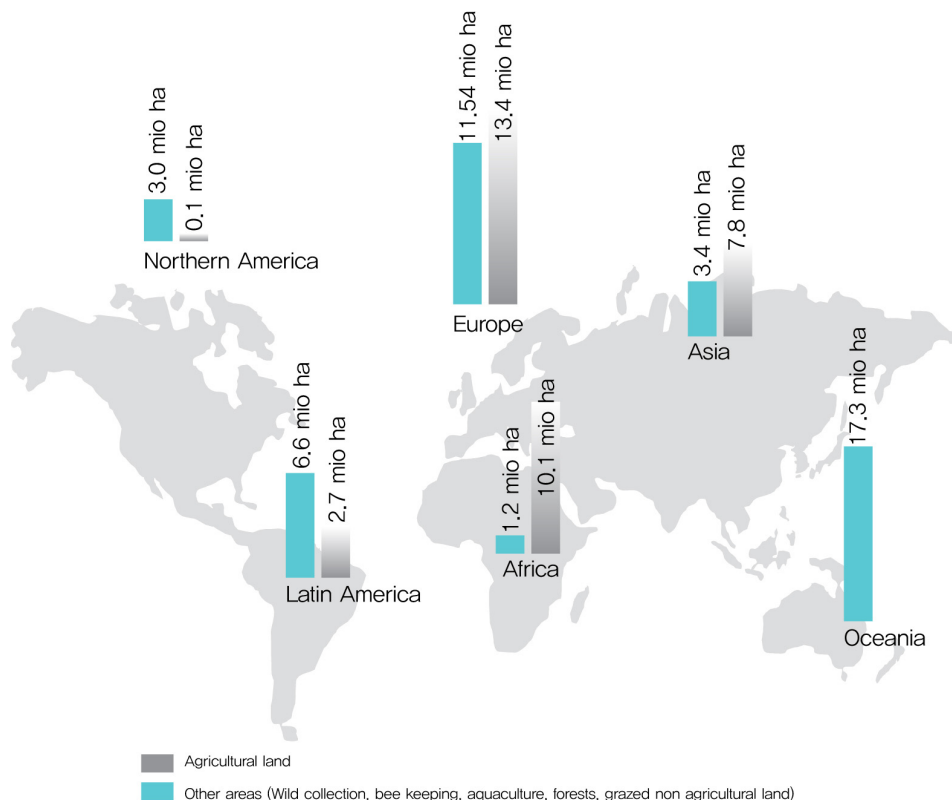
출처 :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2. EU 및 일본의 유기농식품 현황

1) 개괄

- 2013년 기준, 대륙별 유기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오세아니아 17.3백만 ha, 유럽 11.5백만 ha, 남미 6.6백만 ha, 아시아 3.4백만 ha, 북미 3.0백만 ha, 아프리카 1.2백만 ha 순이다.
- EU의 유기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유기재배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야생지역, 양봉, 수경재배, 숲 등의 면적도 13.4백만 ha로 다른 대륙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 전 세계 유기재배 면적과 기타 야생면적(201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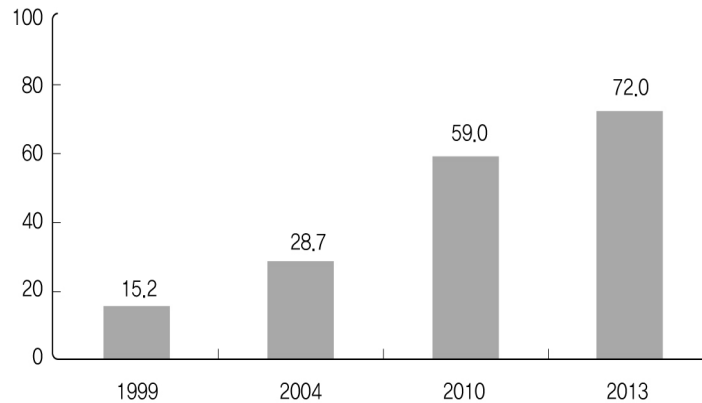


출처 : FiBL-IFOAM survey 2015.

- 2013년 기준 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7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1999년 152억 달러에 비교하여 약 4.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전 세계 유기식품의 시장규모(1999년, 2004년, 2010년, 2013년) ■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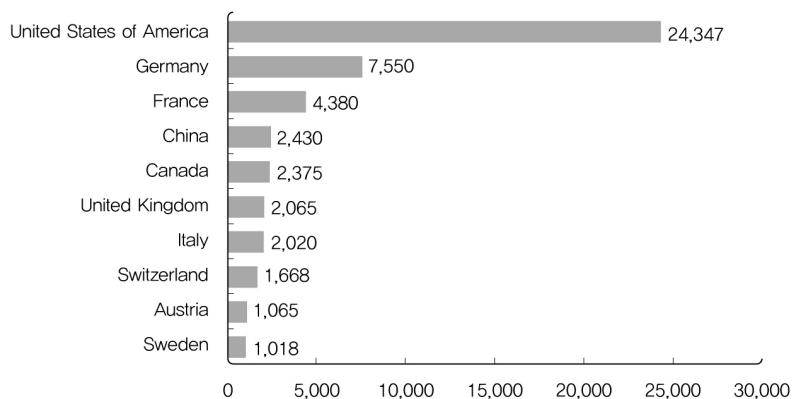


출처 : The Global Market for Organic Food & Drink (Organic Monitor).

- 유기식품시장 상위 10대 국가로는 미국 약 243억 유로, 독일 75.5억 유로, 프랑스 43.8억 유로, 중국 24.3억 유로, 캐나다 23.75억 유로, 영국 20.65억 유로, 이탈리아 20.2억 유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유기식품 시장의 상위 10대 국가(2013년) ■

(단위: 백만 유로)



출처 : FiBL-IFOAM surve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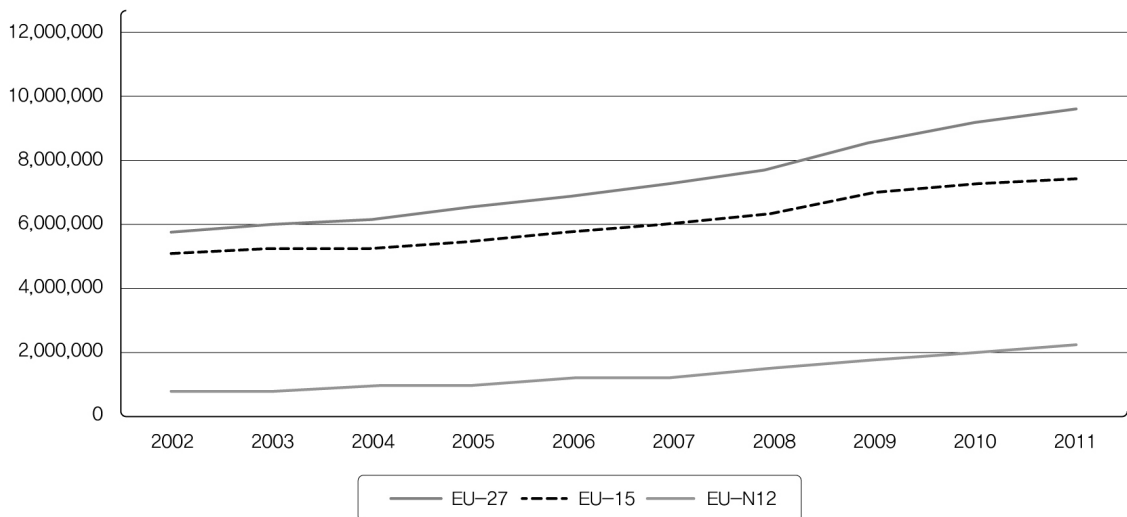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 및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EU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 EU

- EU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기준 EU 27개 국가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약 1천만 ha 수준이다.

■ EU 유기농 경작 면적 현황(2002~11년) ■

(단위: Ha)



주 : EU-27: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총 27개국

EU-15: 유럽연합 기존 회원 1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EU-N12: 2004년 니스 조약 이후 가입한 12개국(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출처 : Eurostat.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이하 IFOAM)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EU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약 208억 유로이며, 1인당 소비액으로는 약 41.7유로이다.
- EU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의 유기식품 소매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순이다.

■ EU의 유기식품과 사업자 및 농지면적 현황(2012년) ■

국가	유기 식품			사업자		재배면적		
	소매 판매액 (백만 유로)	시장 전체 비율 (%)	1인당 소비금액 (유로)	유기농 가공업체 수	유기농 수입업체 수	유기농 재배면적 (천 ha)	전체농지 대비 비율 (%)	2004년 대비 2012년 증가율 (%)
EU-28	20,817	n/a	41.7	38,798	1,453	9,981	5.6	72
독일	7,040	3.7	86.0	8,293	309	1,034	6.2	35
프랑스	4,173	2.4	61.0	8,785	179	1,033	3.8	94
영국	1,950	n/a	31.8	2,206	95	590	3.4	-15
이탈리아	1,843	1.5	30.0	9,542	297	1,167	9.1	23
스위스	1,520	6.3	189.0	n/a	n/a	126	12.0	10
오스트리아	1,065*	6.5	127.0*	n/a	n/a	533	19.7	16
스페인	965	1.0	20.5*	2,790	111	1,593	6.4	187
스웨덴	917	3.9	95.3	680	218	478	15.6	115
덴마크	887	7.6	159.0	517	n/a	183	6.9	5
네덜란드	934	2.3	47.0	1,700	n/a	48	2.5	0
벨기에	417	1.5	37.9	691*	121*	60	n/a	152
노르웨이	209	1.0	43.0	705**	33	55	5.1	35
핀란드	202	2.0	37.4	352*	27**	198	8.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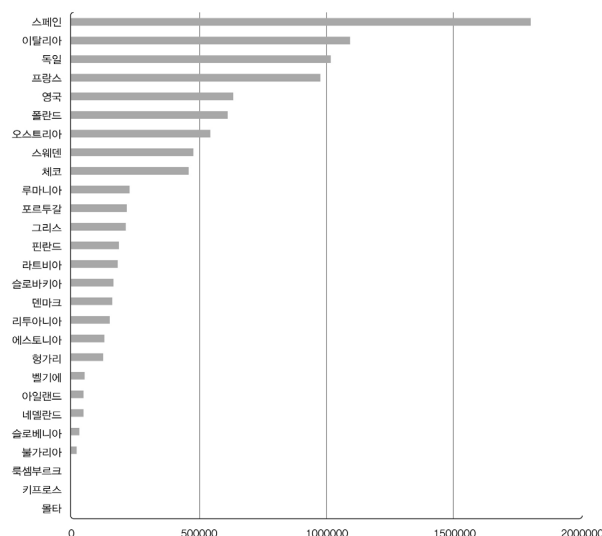
주 : *는 2011년 자료를 의미하며, **는 수출을 포함한 자료임.

출처 : IFOAM.

- 2012년 기준 EU의 유기가공업체는 약 3만 9천여 개이며, 유기농 수입업체 수는 약 1,500개 수준이다.
 - 유기가공업체의 경우 이탈리아 9,542개, 프랑스 8,785개, 독일 8,293개 순으로 많으며, 유기농 수입업체의 경우 독일 309개, 이탈리아 297개, 스웨덴 218개 순으로 많은 편이다.
- 2012년 기준 EU의 유기재배면적은 약 1천만 ha 수준으로 전체 농지에서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대비 약 72% 증가하였다.
 - 스페인 약 1.6백만 ha, 이탈리아 1.2백만 ha, 프랑스와 독일이 약 1백만 ha 순으로 유기농 재배면적이 넓은 편이다.
 - 전체 농지에서 유기농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약 20%, 스웨덴 약 16%, 스위스 12%, 이탈리아 9%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 2011년 기준 유럽의 국가별 유기농 생산면적을 살펴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의 순으로 면적이 넓다.

■ 유럽 국가별 유기농 생산 면적 현황(2011년) ■

(단위: Ha)



출처 : Eurostat.



- EU의 전체 농산물 중 약 5%가 유기농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작물로는 초지 45%, 곡류 15%, 채소류 13%, 두류 2% 등이며, 유기농 축산은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이하 FiBL)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EU의 유기 식품 시장은 약 31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전체 식품시장에서 약 1% 수준이다.

 - 독일의 유기식품시장이 약 100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덴마크와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는 전체 식품에서 유기가공식품이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참고로 한국의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약 1.4조원⁵⁾이라고 가정하면, 2013년 EU의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 310억 달러(약 34조원)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EU는 유기생산물 미래를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Future of Organic Production in the EU)을 통하여 유기농업을 포함한 유기제품 육성을 보다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 3대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 3대 목표는 첫째, EU의 유기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 둘째, 유기제품의 소비자 신뢰도 증진, 셋째, EU 유기제품의 수출확대이다.
 - 이를 위해 총 18가지의 실천계획을 선포하였다.
 - 예를 들면 공동농업정책(CAP)에 부합하고 적용가능한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정기적으로 EU 유기농 로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소규모 농민 등도 유기농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유기제품의 교역에 관한 관세정보시스템 마련, 수출 개도국(예: 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유기농업부문 협력 등이다.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예측치임.

- EU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일본, 유럽경제지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튀니지, 그리고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5년 2월 1일부터 한국과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발효하였다.

3) 일본

- 일본은 1992년 처음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였으며, 국제적인 Codex 기준이 마련되면서 1999년에 일본농업기준(JSA) 법령을 통하여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제품 등과 이들에 대한 표시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 일본에서 유기 가공 식품이란 ‘유기 농산물 및 유기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원료의 무게 95% 이상을 유기로 구성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만, 물, 소금, 빵 효모는 원료에서 제외한다.

■ 일본 유기 가공식품 계산법 ■

$$\text{유기가공식품} = \frac{\text{유기 원재료}}{\text{유기 원재료} + \text{비유기 원재료} + \text{식품첨가물}} \times 100 \geq 95\%$$

- 특히 사용 금지 식품 첨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 방사선 조사 식품이 함유되었거나 살충제, 세정제, 소독제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유기 가공 식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농민 또는 가공업자는 농림수산부에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를 받은 후 시설 및 품질 관리 등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기관명도 동시에 명시하게 된다.
- 인증 사업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생산자로 농가와 낙농가 등이며, 제조업자로는 베이커리 및 기타 가공 식품 제조 기업 등이며, 수입자로는 상사, 기타 유통업체 등이다.
- 생산자, 제조업자 등은 유기 JAS 규격 제도에 대한 이해와 자신들의 역량 등을 확인한 후 등록 인증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현장 심사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유기 JAS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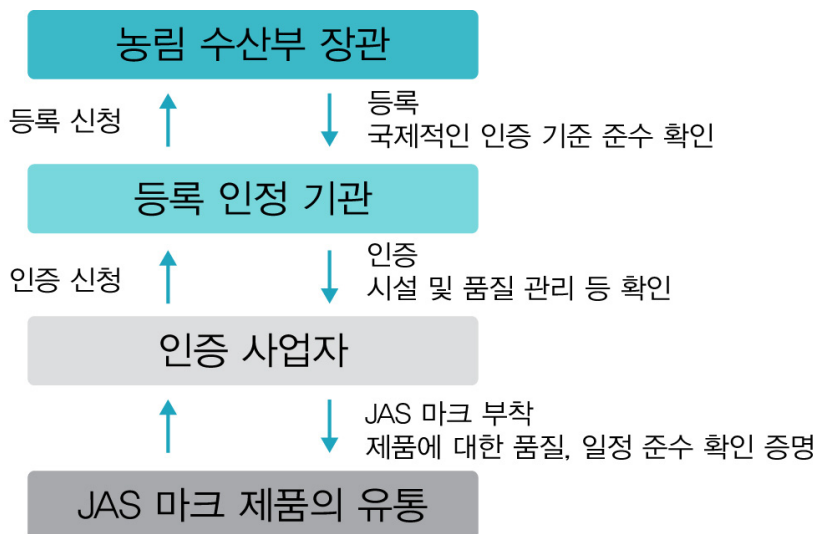
【 일본 유기 가공식품 로고 】



【 일본 유기JAS의 종류 】

유기농산물	밀, 쌀, 포도, 코코아, 콩 등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밀가루, 과일 잼, 건조 과일, 초콜릿, 빵 등
유기축산물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
유기축산물 가공식품	햄, 우유, 분유, 버터, 치즈 등
유기농축산물 가공식품	유기 농산물 가공 식품과 유기 축산물 가공 식품이 함께 사용된 경우
유기사료	목초

【 일본 JSA 인증 체계 】



출처 : 사단 법인 일본 농림 규격 협회.

- 세계유기농협회(IFOAM)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유기농 재배면적은 2013년 1만 6천 ha로 전체 농지의 0.3%에 해당한다. 또한 이 중 9천 ha의 경우만 JAS 인증을 받고 있다.
 - 2012년 기준 일본의 유기농 생산자는 2,130호, 가공업체는 1,805개 업체, 수입업체는 193개 업체가 있다.
- 데이터모니터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2013년 12억 5천 8백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로 추산되며, 2009년부터 5년 동안의 연간 성장률은 약 5.5% 수준이다.
 - 전체 유기식품 중 과일과 채소 부분이 4억 4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규모이며, 이는 전체의 32%에 해당한다.
 - 이러한 연간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18년 일본 유기 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15억 3백만 달러로 예상할 수 있다.
- 일본은 미국, 캐나다, EU와 함께 유기가공식품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며, 2013년 10월 기준, EU,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스위스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맺고 있다.

3.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과 의미

1)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의 주요 내용

● 정부는 EU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 관련 절차와 세부이행 관련 Q&A 작성 및 행정적인 내부 절차 등의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12월 19일자 보도자료).

-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는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이 협정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EU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로 총 28개국이다.
-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은 2014년 7월 1일 발효된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되었다.

■ 한국과 EU의 유기농 인증 로고 ■

한국 인증로고	EU 인증로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19일자 보도자료

● **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류해보면 ① 유기가공식품의 인정 범위 ② 상호 유기 표시 ③ 수입증명서 첨부 ④ 승인 기관에 대한 정기적 심사 ⑤ 제도 개정 필요시 상호 통지 ⑥ 상호 현장평가 허용 및 협력 ⑦ 정보 공유 등이다.**

- 동등성 인정범위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하였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국내 수입제품의 경우 한국의 규정을 적용하고, EU로의 수출제품은 EU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가공을 위한 원료 생산지는 제한하지 않고, 최종 가공이 한국과 EU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교역이 가능토록 하였다.
-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금지 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검사·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자국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한국으로 수입하는 유기가공제품은 EU 규정에 따라 유기로 표시되어야만 하고, EU 유기 로고와 한국 유기 로고 모두 사용 가능하다.
- EU 국가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포함하여 수입검사증명서를 발급받고 EU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 한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은 국제기준(ISO17011)을 참조 표준으로 적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내 인증기관의 인정지위에 관한 변경사항, 한국 유기식품규정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EU 집행위원회의 사전통지에 의해 한국에서 주기적인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된 법률 내에서 인증기관, 생산시설 및 농장을 포함한 시설 방문을 허용하고 이에 협력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EU에 수출된 한국 유기가공식품의 유형과 수량에 대한 정보, 관련 기관이 파악한 부적합 유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 조치, 그리고 한국 유기인증 기관 목록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게 된다.

2) 의미와 과제

● 동 협정은 한국이 체결한 2번째 유기농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우리 유기인증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등 우리 유기농식품 교역시장이 보다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가간 상호 동등성 협정을 통하여 유기농식품에 대한 유통비용(현지 인증비용 등)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만큼 이는 양국의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 수입 유기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농식품이 EU 유기인증과 함께 EU 국가로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유기농식품의 성장기회가 보다 확대되었다.

● 한편, EU는 이미 전 세계 13개 국가⁶⁾와 유기농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내 유기농식품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 국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EU산 유기농식품의 수입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기농식품의 상품 종류가 보다 다양해질 것이며, 동시에 국내 유기농식품 시장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 국내에서는 동일한 유기농식품이라도 EU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정부는 향후 유기작업반을 통하여 EU 유기농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유기농식품 생산업체들의 수출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상품교역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은 정보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상호동등성 인증을 통하여 수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

6)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튀니지, 미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또한 정부는 우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해외 유기농 로고를 사용함에 따른 교란요인이 없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 EU와의 상호동등성 협정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내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일례로, EU 유기인증 로고와 국내 유기인증 로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등도 필요하고, 국내 유기가공식품이 EU 유기인증로고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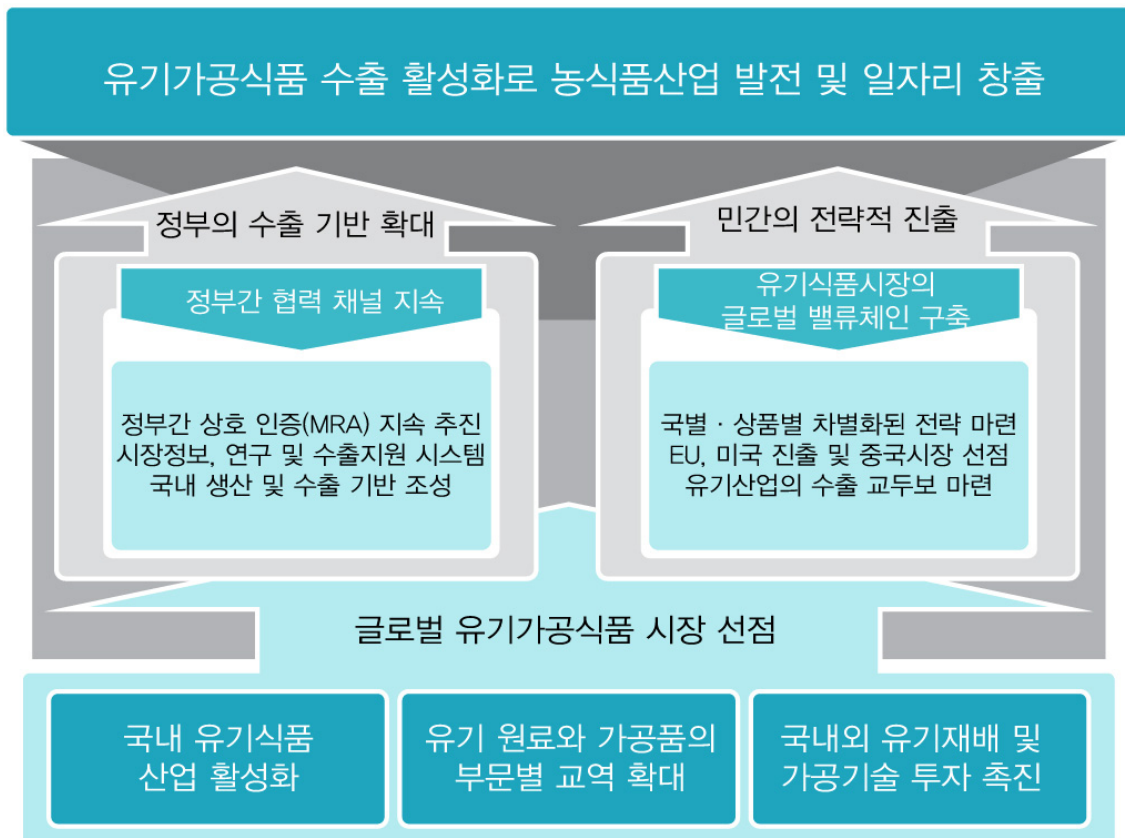
● 기업은 상호동등성 협정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EU 유기가공식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제는 EU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기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 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축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수입 유기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품목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EU 유기식품 시장의 급성장에 편승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로, EU의 주요 수입유기식품은 브라질산 커피, 뉴질랜드 키위, 태국산 쌀, 코스타리카의 바나나, 페루의 코코아, 우간다의 파인애플 등이다.
- 전 세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U,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등 기타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유기농식품의 수출활성화 전략

- 국내 유기식품 산업 활성화, 유기원료 및 가공품의 교역 확대, 국내·외 유기재배 및 가공기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유기농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출기반 확대, 민간의 전략적 진출 도모가 필요하다.

■ 유기농식품의 수출 활성화 전략: 정부의 수출기반 확대와 민간의 전략적 진출 ■



출처 : 저자 작성.

1) 정부의 유기농식품의 수출 기반 확대

- 정부는 유기농식품 수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기인증 제도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급성장하는 유기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와 연구 및 수출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가. 유기농식품의 상호 동등성 협정의 안정적 유지와 추가 협정 추진

- 우리는 미국(2014.7.1) 및 유럽(2015.2.1)과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발효시킨 바, 이러한 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나아가 중국 등과 유기농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 기체결된 미국, EU와의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기농식품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국내 인증 유기농식품의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 하지만 국내 유기농식품의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과 EU 유기농식품에 대한 품목별 시장조사를 보다 면밀히 하여 수출이 가능한 국내 유기농식품의 생산 및 수출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한다.
 - 정부는 유기농작업반을 통하여 미국 및 EU와 공동으로 유기농식품의 제도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및 EU 시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여 국내 농업 부문에도 혜택이 갈 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상호인정협정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출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급증하는 일본의 유기농식품 시장을 고려하여 일본 수출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일본과는 현재 한-일 FTA, 한-중-일 FTA가 다소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간 유기농식품 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 농산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클 수 있다.
 - 일례로 미국 농무부의 일본 유기농시장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약 20~30% 수준으로, 파프리카, 화훼류 등 신



선농산물 위주의 수출에서 이제는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수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이다.

나. 유기가공식품의 국내·외 시장정보, 연구,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인증, 생산, 유통 및 수출입 현황, 수출 애로사항 조사, 소비자 인식 조사, 정부의 지원 제도, 국제적 인증제도와 획득 관련 정보, 국제 유가식품 시장현황 등 총체적인 정보 교류 시스템과 연구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일례로, EU의 공동농업정책(CAP)(2014~2020)을 통하여 유기농업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인치하고 기존의 녹색직불제(green direct payment)를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녹색직불제는 EU가 강제하는 국가의 직불금으로 전체 지원액의 30%를 차지한다.
- 또한 EU는 지역개발정책(RDP)을 통하여 2011년 각 국별로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였고, 국별로 적합한 패키지 형태의 유기농 지원 정책을 적극 강조하였고, 이러한 국가별 사안들이 EU의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 반영되었다.
- 미국도 농업법에 의하여 2002년부터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유기농업 관련 자료 구축에 5백만 달러, 유기농프로그램 기술시스템과 자료 업그레이드에 5백만 달러,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 및 농민 지원 서비스에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체계적인 유기농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국, 캐나다, EU와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후, 이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도 국내·외 급변하는 유기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적인 영역에서 생산하고 이를 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수출 농업인들이 정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제도 하에서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정부의 일반적인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는 크게 해외시장개척지원, 농축산물 판매촉

진 지원,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기가공식품은 가격경쟁력보다는 고품질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경쟁력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며, 대부분 내수 판매 위주이다.
- 해외 유기인증에 대하여 일부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출실적으로 얼마만큼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부는 김치, 삼계탕, 유제품 등 농수산물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을 수출 첨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히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쌀의 수출계획도 발표하였다.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하여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수출보험지원 한도도 올릴 계획이다.
- 따라서 아직까지 생산 및 수출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유기가공식품도 농식품 수출지원의 도움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 이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확대’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을 위한 중장기 국내 생산 및 수출 기반 조성

- 유기가공식품의 중장기 수출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일반농식품 수출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수출국의 유기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실제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1년 동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연간 인증계획량이 4.7백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일부 기업(예: ‘범산농장’의 우유 및 유제품 약 2.3백만 톤, ‘강릉초당두부’의 두부류 약 1.2백만 톤, 브라질의 설탕제품 45만 톤, 터키의 기타식품 약 20만 톤 등)을 중심으로 유기가공식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수의 품목에 그치고 있다.



- 또한 총 751건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건수 중 약 23%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품목의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예상된다.
- 최근 1년간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설탕, 식용유지류, 커피 등을 중심으로 해외 유기가공식품의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 두부류 등 일부 소수품목을 중심으로 내수용 유기가공식품 생산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생산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수출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유기농축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형 첨단식품기술 융·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2) 민간의 전략적 진출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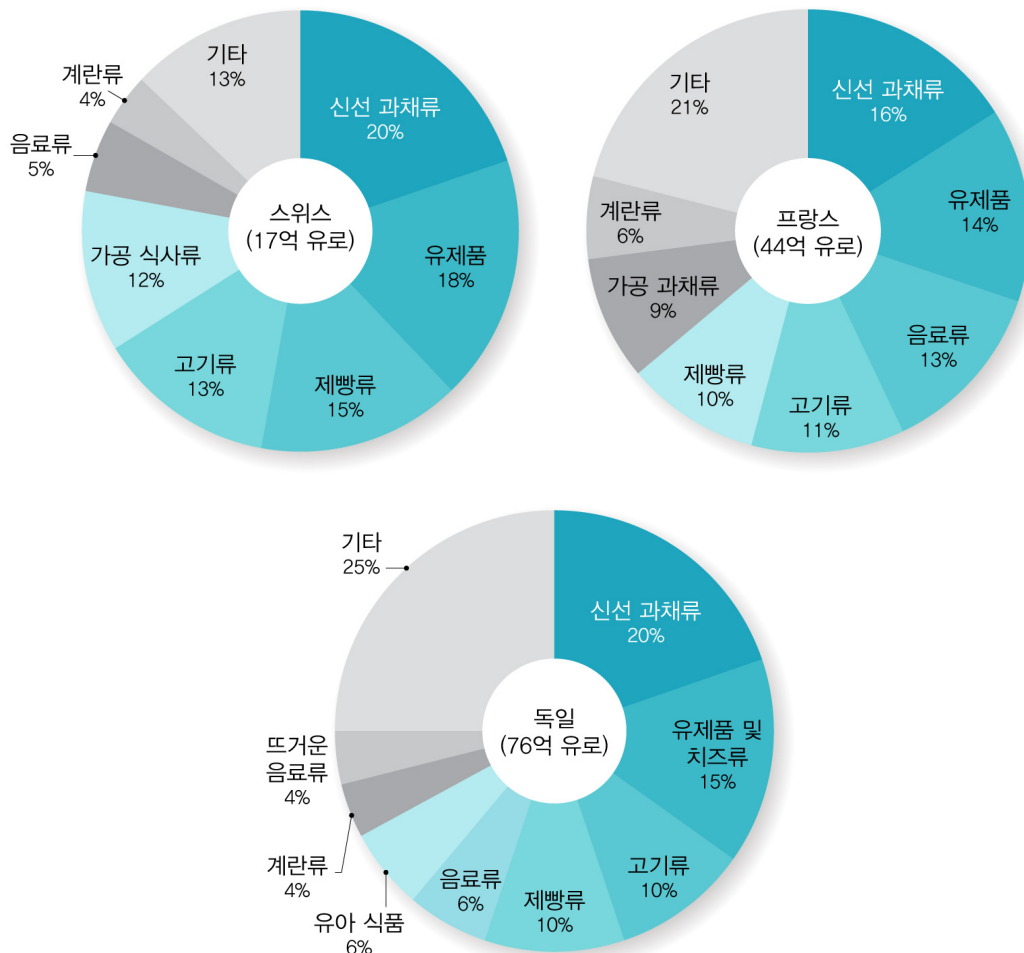
- 민간기업이 유기식품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별·상품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EU와 미국시장 진출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로 유기식품시장 내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가. 국별·상품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 마련

- 기업들은 급증하는 전 세계 유기가공식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유기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과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대상국가의 수요층에 따른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의 유기가공식품의 시장 규모가 약 1.4조원이라고 볼 때,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EU, 미국, 중국의 유기식품 시장 규모가 순서대로 약 34조 원(2013년), 약 16조 원(2014년), 약 3조 원(2013년)임을 감안해야 한다.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13년 전세계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약 720억 달러(약 79조 원)로, 2012년 기준 약 638억 달러(약 65조 원) 대비 약 12.9% 증가하였다.
- EU 주요국의 유기식품 품목별 소매시장 분포를 살펴보면, 신선과채류와 유제품이 주를 이루지만, 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례로 신선과채류와 유제품 이외에 스위스의 경우 제빵류, 고기류 및 가공식사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음료류, 고기류, 제빵류, 가공 과채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고기류, 제빵류, 음료류, 유아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 EU의 주요국별 유기식품의 품목별 소매시장 분포(2013년) ■



출처 : FiBL and IFOAM (20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참고로 ITC(2011)는 중국 유기식품 소비자의 40%가 화이트칼라, 10%는 어린이용 유기식품 및 유제품에 관심이 높은 가정, 10%는 노인과 함께 생활, 10%는 중국계 대만이나 홍콩 출신(2009년 기준 약 1백만 명), 10%는 정부 관료, 7%는 중국 거주 외국인, 5%는 해외에서 유기농을 경험한 세대(약 50만 명), 3%는 유기농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로 파악하였다.
- 이처럼 기업들은 해외 유기식품 소비자조사를 기반으로 유기가공식품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시 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현지의 유기가공식품 관련 축제나 박람회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일례로 2015 IFOAM 세계유기농대회 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나. EU와 일본시장 진출

- 기업들은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을 계기로 EU에 진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인근의 일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 EU는 이미 미국, 일본, 튀니지 등 전 세계 13개 국가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EU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 하지만,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 일본 시장의 경우, 우리는 주로 신선 농산물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는바, 일본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수출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미국 농림부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유기가공식품의 일본시장 진출시 주요 고려사항 ■

항목	주요 고려 사항
시장트렌드	•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이후 식품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 유기농 식당과 상점(예: 영국계 Daylesford)들이 도시 지역에 생겨나면서 젊은 층의 수요를 자극
유통채널	• 대규모 유통채널(예: 미국의 Whole Foods)의 부재 • 소규모 유통채널(예: Natural House, Mother's Organic Market) 중심으로 유기가공품 유통
판매이슈	• 유기식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20~30% 수준 • 전반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공급 부족
유망 진출 분야	• 가족 친화적 유통망과 카페 및 대규모 식당 등에 대한 수요가 높고, 유기축산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온라인 유기농식품 유통(예: Oisix, Radish-Boya 등) 부문 성장잠재력이 높음. • 선물용 유기가공식품(예: 유기커피, 유기차, 유기농 비누, 유기농 식물성 기름, 유기농 면화 제품 등)의 수요가 높음. • 유기농 편의식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음.

출처: 미국 농무부 조사보고서(2013).

다. 유기식품산업의 수출 교두보 확보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 기업들은 EU 시장과 일본 유기식품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기존의 미국 시장을 포함하여 유기식품시장 내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할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유기원료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브라질, 터키, 미국 등으로부터 유기원료를 수입한 후 유기가공식품으로 가공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 일례로 2012년 중량기준으로 살펴보면, 유기설탕은 브라질, 유기농 바나나는 필리핀, 유기 과채류는 미국, 유기농 침출차는 중국, 유기농 밀은 호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졌다.
- 또한 한국에서는 유기축산을 위한 유기사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기축산 가공식품을 위한 유기원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유기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외 거점 생산지역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한 후 수출대상국(EU,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I. 국제 금융시장

작성자: 양다영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1. 국제 외환시장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시행을 결정하면서 강세를 지속하였다.

- ECB는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2%) 달성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총 1조 1,4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1/22).
 -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매입 자산 중 회원국 국채는 450억 유로, 기관채는 50억 유로, 기존에 매입 중인 ABS와 커버드본드는 100억 유로에 해당
- 이에 따라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후 싱가포르, 중국, 호주 등 신흥국들이 잇달아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 달러의 절상 속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1/28),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고(2/4) 호주 중앙은행은 25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2/3).

원/달러 환율은 1월 무역수지가 55억 3,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에 비해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글로벌 통화완화 움직임 등으로 상승하였다.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5.2.11 (현재)	2015.1.11 (1개월전)	2014.2.11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¹	94.99	91.94	80.64	3.32%	17.79%
달러/유로	1,1336	1,1842	1,3638	-4.27%	-16.88%
엔/달러	120.46	118.50	102.63	1.65%	17.37%
위안/달러	6,2423	6,2072	6,0606	0.57%	3.00%
원/달러	1097.7	1090.0	1071.1	0.71%	2.48%

주 :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출처 :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시추 건수 감소로 상승하였으나, 달러화 강세,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이 상승세를 제한하였다.

●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의 원유 시추 건수가 감소하고 석유 개발 기업의 투자 감축이 예상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였다.

– BHI(Bakers Hughes Institute)에 따르면, 2월 6일 기준 미국의 시추 건수는 9주 연속 감소한 1140개로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미국 코노코필립스사, 아파치사, 프랑스 토탈사 등 주요 석유 개발 기업들이 잇달아 2015년중 투자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 다만 미국의 원유 시추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세를 제한하였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월 6일 기준 미국의 원유재고는 전주대비 487만 배럴 증가한 4억 1,790만 배럴을 기록하여 1982년 8월 집계 시작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15년 세계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이다.

– EIA는 2015-16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각각 930만 b/d, 952만 b/d로 전망하였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공급 과잉으로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가 2015년 중반 28억 3,000만 배럴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구분	2015.2.11	2015.1.11	전월대비 상승률
WTI유	48.84	48.36	0.99%
Dubai유	54.91	47.41	15.82%
Brent유	54.66	50.11	9.08%

출처 : Bloomberg.

● **시카고에서 거래된 주요 곡물 가격은 미국의 수출판매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 미 농무부의 2014/15년 세계 곡물 공급량 전망치 상향 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

- ECB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유로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미국산 소맥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소맥 가격이 하락하였다.
 - 또한 유로화 약세와 러시아의 수출세 부과 등으로 인해 주간 EU의 연질밀 수출이 167만 톤으로 2004년 7월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하였다(2/3).
-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1월 29일 기준 미국의 옥수수 및 대두의 현 시즌 누적 수출판매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를 제한하였다.
 - 옥수수는 1,532만 톤으로 전년대비 16.2%, 대두는 3,654만 톤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 한편, 2014/15년 세계 곡물 공급량 전망치가 전월의 29억 7,265만 톤에서 29억 7,993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곡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WASDE 2015.2).
 - 미국의 경우 2014/15년 소맥 수출량 하향 조정 폭이 수입량 상향 조정 폭을 넘어서면서 기말 재고량이 전월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6억 8,700만 부셸 → 6억 9,200만 부셸).
 - 반면 옥수수 및 대두 기말 재고량은 공급량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량 상향 조정으로 전월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다(각각 18억 7,700만 부셸 → 18억 2,700만 부셸, 4억 1,000만 부셸 → 3억 8,500만 부셸).

■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구분	2015.2.11	2015.1.11	전월대비 상승률
소맥	525.75	563.75	-6.74%
옥수수	385.75	400.25	-3.62%
대두	977.75	1051.50	-7.01%

주 : 근월물(최근 선물) 기준

출처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사항

작성자: 박지현

1. 최근 검역제도 변경사항
2. 최근 수입제도 변경사항

1. 최근 검역제도 변경사항

미국, 농식품 잔류농약 한계치 WTO에 통보(2015. 1. 27)⁷⁾

- 미국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따라 농식품의 잔류농약 허용한계치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2014년 12월, 2015년 1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잔류농약 한계치 규정이 제정될 때마다 이를 WTO에 통보하고 있다.

Ⅱ 미국 주요 농식품의 잔류농약 한계치 규정 Ⅱ

품목	농약	Parts per million (ppm)	발효일자
어류-민물	Deltamethrin	0.01	2014.11.7
어류-바닷물	Deltamethrin	0.01	2014.11.7
비트(설탕, 뿌리)	Hexythiazox	0.15	2014.12.10
아몬드	Flupyradifurone	15	2015.1.23
콩	Flupyradifurone	0.2	2015.1.23
소(meat)	Flupyradifurone	0.3	2015.1.23
커피	Flupyradifurone	1.5	2015.1.23
옥수수	Flupyradifurone	0.05	2015.1.23
면화(gin byproducts)	Flupyradifurone	40	2015.1.23
달걀	Flupyradifurone	0.01	2015.1.23
과일(감귤류)	Flupyradifurone	10	2015.1.23
염소(meat)	Flupyradifurone	0.3	2015.1.23
곡물(cereal, forage, fodder and straw)	Flupyradifurone	30	2015.1.23
포도	Flupyradifurone	5	2015.1.23
우유	Flupyradifurone	0.15	2015.1.23
양파(bulb)	Flupyradifurone	0.09	2015.1.23
땅콩	Flupyradifurone	0.04	2015.1.23

출처 : Federal Register, Volume 79, Number 216, 237, Volume 80, Number 15.

7) G/SPS/N/USA/2720, G/SPS/N/USA/2722, G/SPS/N/USA/2727.



● **일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개정안 WTO에 통보(2014. 12. 18)⁸⁾**

-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2014년 11~12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농약 Triflumizole, Etofenprox, Kasugamycin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MRLs)는 다음과 같다.

■ 농약 Triflumizole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개정안 ■

농약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Triflumizole	밀	0.7	1.0
	보리	0.7	1.0
	호밀	0.7	1.0
	옥수수	0.5	1.0
	대두	—	0.05
	감자	—	0.05
	브로콜리	—	1.0
	양파	0.2	1.0
	마늘	0.3	1.0
	아스파라거스	0.5	1.0
	당근	0.5	1.0
	오이	0.7	1.0
	호박	0.5	1.0
	멜론	0.3	2.0
	생강	0.5	1.0
	사과	0.7	2.0
	배	1	2.0
	복숭아	0.7	2.0
	딸기	1	2.0
	바나나	—	2.0
	망고	0.7	2.0
	우유	0.02	0.05

출처 :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5241_00_e.pdf

8) G/SPS/N/JPN/381, G/SPS/N/JPN/378, G/SPS/N/JPN/386.

■ 농약 Etofenprox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개정안 ■

농약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Etofenprox	완두	0.05	0.1
	땅콩	0.05	0.1
	브로콜리	—	2
	아스파라거스	—	2
	당근	—	0.5
	호박	1	2
	포도	4	—
	바나나	—	2
	망고	5	2
	아몬드	—	0.1

출처 :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5238_00_e.pdf.

■ 농약 Kasugamycin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개정안 ■

농약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Kasugamycin	쌀	0.2	0.04
	콩	0.2	0.04
	땅콩	—	0.04
	감자	0.2	0.04
	브로콜리	0.2	0.04
	양파	0.2	0.04
	마늘	0.2	0.04
	당근	0.2	0.04
	토마토	0.2	0.03
	오이	0.2	0.05
	호박	—	0.05
	수박	0.2	0.05
	멜론	0.2	0.04
	생강	—	0.05



농약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완두	0.04	—
	레몬	0.2	0.05
	오렌지	0.2	0.05
	자몽	0.2	0.05
	사과	0.2	—
	배	0.2	0.04
	복숭아	0.2	0.04
	키위	0.2	0.04
	월넛	0.04	—
	차	0.2	0.04

출처 :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5508_00_e.pdf.

EU, 농식품 농약 잔류허용치 수정초안 WTO에 통보(2014. 11. 14)⁹⁾

● EU는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III, V의 농식품에 대한 농약 최대 잔류 수준(Maximum residue levels; MRLs) 수정 초안을 2014년 11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이 초안은 곡물류(HS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동물성식품류(HS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채소 및 과일 등 식물성제품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 EU 주요 농식품의 농약 MRLs 수정 초안 ■

(단위: mg/kg)

	1-methylcyclopropane		Flonicamid		Flutriafol		Indolylacetic acid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자몽	0.01	0.01	0.1	0.15	0.2	0.01	—	0.1
오렌지	0.01	0.01	0.1	0.15	0.2	0.01	—	0.1

9) G/SPS/N/EU/116.

	1-methylcyclopropane		Flonicamid		Flutriafol		Indolylacetic acid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현재	개정
아몬드	0.01	0.02	0.05	0.06	0.05	0.02	—	0.1
월넛	0.01	0.02	0.05	0.06	0.05	0.02	—	0.1
사과	0.01	0.01	0.2	0.3	0.4	0.4	—	0.1
배	0.01	0.01	0.2	0.3	0.4	0.4	—	0.1
복숭아	0.01	0.01	0.3	0.4	0.6	0.6	—	0.1
딸기	0.01	0.01	0.05	0.03	0.5	0.01	—	0.1
키위	0.01	0.01	0.05	0.03	0.05	0.01	—	0.1
바나나	0.01	0.01	0.05	0.03	0.3	0.3	—	0.1
망고	0.01	0.01	0.05	0.03	0.05	0.01	—	0.1
감자	0.01	0.01	0.1	0.09	0.2	0.01	—	0.1
당근	0.01	0.01	0.05	0.03	0.2	0.01	—	0.1
마늘	0.01	0.01	0.05	0.03	0.05	0.01	—	0.1
양파	0.01	0.01	0.05	0.03	0.05	0.01	—	0.1
토마토	0.01	0.01	0.3	0.5	0.3	0.6	—	0.1
오이	0.01	0.01	0.5	0.5	0.05	0.01	—	0.1
호박	0.01	0.01	0.3	0.4	0.3	0.01	—	0.1
브로콜리	0.01	0.01	0.05	0.03	0.05	0.01	—	0.1
참깨씨	0.02	0.02	0.05	0.06	0.2	0.02	—	0.1
보리	0.01	0.01	0.05	0.03	0.5	0.15	—	0.1
옥수수	0.01	0.01	0.05	0.03	0.5	0.01	—	0.1
귀리	0.01	0.01	0.05	0.03	0.5	0.01	—	0.1
쌀	0.01	0.01	0.05	0.03	0.5	1.5	—	0.1
호밀	0.01	0.01	0.05	2	0.5	0.15	—	0.1
밀	0.01	0.01	2	2	0.5	0.15	—	0.1
차	0.02	0.05	0.05	0.1	0.05	0.05	—	0.1
우유	—	0.01	0.02	0.02	0.01	0.01	—	0.1
달걀	—	0.01	0.05	0.04	0.01	0.01	—	0.1
꿀	—	0.05	0.05	0.05	0.05	0.05	—	0.1

출처 : <http://members.wto.org> (2015년 1월 13일 검색).



2. 최근 수입제도 변경사항

● 중국, 한국산 심비디움(Cymbidium) 식물 검사검역 요구 공고(2014. 12. 2)¹⁰⁾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품질감독검사검역국은 2014년 12월 2일 한국산 심비디움 식물에 대한 검사검역 요구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한국산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2015년 1월 28일부터 ‘수입 한국산 심비디움 식물검사검역요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역 검사: 심비디움 입국 전, 수입업체는 중국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심비디움 입국식물검역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수입 심비디움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하는 종묘항구에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 서류 검사: 식물검역증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중국 관련 부서가 발급하는 입국식물검역심사허가증의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
 - 입국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대중 수출 심비디움이 입국항구에 도착할 경우, 중국 ‘식물검사검역공작수첩’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포장, 깔고 있는 재료, 컨테이너 등에 토양, 해충, 잡초 씨앗이 붙으면 안 된다.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토양이 검출되거나 등록되지 않는 수출업체가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증서 혹은 포장라벨 표기정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화물의 입국을 불허한다. 또한 유해생물이 검출될 경우, 관련 화물을 반품, 소각하며, 질검총국은 한국이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심비디움 수입을 금지한다.

10)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IV. 유기가공식품 수출 유망품목 및 수출전략 : EU, 일본

작성자: 김태윤

1. 유기가공식품 수출 유망품목과 수출전략: EU 및 일본

● 현재 우리의 유기가공식품 생산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유럽과 일본으로의 수출 유망품목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지 수요를 고려할 경우 1차 가공한 신선 과채류, 두부류, 유제품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IFOAM에서도 밝혔듯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유기가공식품 수입국들은 신선과채류, 유제품, 음료류, 고기류, 제빵류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된 유기농 신선과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근 국가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신선 채소와 과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선과채류를 이용하여 편의식품 형태의 1차 가공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대규모 식당을 중심으로 유기축산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 EU 수출전략으로는 우선 유럽인들의 수요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생산여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EU 인근의 해외 생산기지를 거점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함으로써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2015년 1월 기준, 한국의 총 751건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건수 중 약 23%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바,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을 EU 시장으로 바로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유럽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편의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해외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 참고로, EU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유럽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과 건강, 자연보전 및 환경보호, 맛, 동물복지, non-GMO, 원산지 순으로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차 가공한 신선과채류, 두부류, EU 인근에서 생산된 유제품 등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은 충분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기농 제품에 대한 구매 동기조사 ■

국가	자연보전 및 환경보호	식품안전 /건강	동물복지	맛	원산지	non- GMO	기타
오스트리아	4	6	3	2	3	1	3 미용 및 웰빙
벨기에	6	7	4	5	3	1	2 공정무역
덴마크	6	6	4	4	1	3	5 주의
핀란드	—	7	4	6	3	7	—
프랑스	6	7	4	6	4	—	—
독일	3	7	5	4	2	2	—
그리스	3	7	5	4	2	2	4 호기심
아일랜드	6	5	4	4	—	2	—
이탈리아	3	6	1	5	2	4	—
룩셈부르크	4	7	4	5	6	4	자극심
포르투갈	7	6	3	5	4	2	1 공정무역
스페인	5	3	5	2	1	—	6 긍정적 이미지
스웨덴	5	6	3	2	1	2	
네덜란드	5	7	2	5	—	—	—
영국	4	6	3	3	2	3	—
EU-15	4.9	6.2	3.4	4.3	2.5	2.8	—
체코	4	7	2	6	2	1	—
슬로베니아	3	5	2	6	4	2	—

*1=중요도 낮음, 7=중요도 높음

출처: Organic Marketing Initiatives and Rural Development(2004).

● 對일본 수출전략으로는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신선채소류를 기반으로 이를 1차 가공한 형태의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유망하고, 기존의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최근 성장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인터넷소매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 일본의 전체 유기식품 중 과일과 채소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소매시장에서 유기농 편의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의 신선 및 가공채소류 수출과 함께 이를 1차 가공해서 만든 신선편의식품의 수출기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일본에는 아직까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대규모 유통채널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채널과 인터넷 소매시장을 통한 판매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물용 유기가공식품 시장(예: 유기차, 유기농 면화 제품 등)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되는 전략이다.

aT get (Global Export Trends) 한국 편

2014 K-10

**유기가공식품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발 행 일 : 2015. 3.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 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 931-0875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